

조습의 문제 - 탈주 및 도피, 씹김굿

아주 오래전, 군대 유격 훈련의 마지막 코스에 탈주 및 도피라는 과정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하고 도망하는 과정인데 추적조인 조교와 교관에게 잡히면 발바닥을 죽게 맞고 얼차려를 받는다는 코스.

이상하게 조습의 작업들을 보자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조습은 작품 속에서 도망치고, 탈주하고 멀리 멀리 가버리고 싶어 한다.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나 아시다시피 도망 못간다. 붙잡혀 얻어맞고, 물고문 당하고, 발에 깔리고, 성고문 당하고, 시체가 되었다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난 뒤에도 다시 그 과정은 되풀이 된다.

그 연극적, 자학적인 그의 작업들은 결과 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 보인다. 역사나 사건의 어설픈 재현과 사진 이미지로의 기록 보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그는 즐기는 듯하다.(당연히 그에게도 썩한 사진 같은 결과물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세계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작업 속에는 매저키스트적 요소가 강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개인에게 부과된 역사적 트라우마, 혹은 트라우마라고 보여지는 어떤 강박증의 치유를 시도한다. 하지만 그는 치유되지 못한다. 즉 도망 못간다. 왜냐면 상처와 내상은 끝없고 치유의 효력은 약발은 길게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비슷한 작업들을 되풀이 한다. 버전을 달리해서.

작가들의 비극은 거기에 있다. 마치 그리이스 고전 비극처럼 어쩔 수 없는 운명과 사실에 대한 거역을 끝없이 되풀이 하는 것이다. 여기 시지프스와 탄탈로스를 떠올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다시 굴러 내리는 바위와, 눈에 보이지만 목을 축일 수 없는 물.

조습의 작품은 일종의 씹김굿이다. 물론 그 굿은 무당의 그것이 아니라 작가, 양아치, 변태적인 것을 차용해서 이루어진다. 정직하게 말해서 그의 작업은 양아치와 변태가 못되는 작가의 하위 양식의 차용이다. 이 때 양식이란 작업의 형식이 아니라 작업 속에 드러나는 행위와 장소와 태도 등을 말한다.

아마도 그 양아치성 때문에 조습이 캐스팅한 작가, 평론가 등등은 기꺼이 참여하는 듯이 보인다. 왜냐면 이미 지식인인 그들은 어떻게 해도 양아치는 못되고, 퍼포먼스 속에서 대리 체험 하는 게 즐겁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 모두가 가진 트라우마를 조습의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공동 치유하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과연 치유가 좀 이루어졌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서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치유의 제스처가 필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예술작품이란 결국 제스처 형식의 방어기제이다.

일종의 방어기제로서의 조습의 작품들은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실, 범죄, 사건들이 그에게 온다. 그것들을 어설피게 재현하는 척 함으로써 승화시키려 한다.(조습이 실행하는 사건의 재현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나 유사성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성이다. 즉 물에 담귀지고, 길거리에 시체가 되어 누워 있는 정황들이 의미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마도 속죄의 기분과 타인과의 동일시를 경험할 것이다.) 유명 작업들과 양아치, 날나리적 행동 양식을 차용하고, 패러디함으로써 심리적 방어기제의 다양한 방식들이 담겨 있게 된다. 자기동일시, 합리화, 억압, 격리.... 등등.

조습의 강점은 자신을 희화화 하는 것이다. 모든 농담, 개그 유머가 그렇듯이 진짜 풍자는 풍자 대상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풍자하는 자의 알리바이가 없어야 한다. 조습의

작업 속에 그는 늘 현장에 있다. 그는 풍자와 패러디의 대상뿐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자신을 풍자하고, 비웃는다. 그것은 미술을 둘러싼 시스템과 소비와 담론들로 확대된다. 사실 그러므로 조습이 다루는 것은 역사나 사건뿐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에 대해 언급하는 미술 전체이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그러므로 조습의 작품은 바로 여기 있는 당신에 대한 비웃음이자 농담인 것이다.

강홍구 (작가)